

진주 지역어의 홀소리 체계와 경남 중방언권 경계에 대한 논의*

박정수 *

|| 차례 ||

1. 머리말
2. 진주 지역어 홀소리 체계
 - 2.1. 홀홀소리
 - 2.2. 겹홀소리
 - 2.3. 홀소리 체계
3. 방언 경계로서의 남강
 - 3.1. 경남 방언의 구획에 대한 연구
 - 3.2. 진주의 소방언권 분화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진주 지역어의 음소 체계를 파악해 보고, 진주에 작은(소)방언권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밝혔다. 이 연구에서 방언 구획을 설정하는 방법은 음소 체계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다.

진주 지역어에서는 /ə/ 음소와 /i/ 음소 두 음소를 대립(변별)하지 못 하고 있으며, /ə/ 음소와 /i/ 두 음소가 하나의 소리로 중화해 /ɜ/ 음소로 실현되고 있다. 진주 지역어 /ɛ/ 는 진주 하위 지역에 따라 /ɛ/ 음소 또는 /ɛ/와 /e/ 두 음소가 합류해 /E/ 음소로 실현되고 있다. 곧 진주 지역에서는 /ɛ/ 음소가 실현되고 있는 하위 지역과 /E/ 음소가 실현되는 진주 하위 지역으로 분화 된다.

진주의 등어선은 남강을 중심으로 흐르고, 곧 남강은 방언의 경계선이 되고, 남강의 주변은 방언 접경지역이다. 진주의 동남부 지역과 서북부 지역에서 체계가 다른 작은 방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진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jspark@cue.ac.kr

언권이 형성되어 있다. 진주의 동부 쪽에서 먼저 방언의 분화가 일어난 것 같다.

주제어 : 홀소리, 준동음, 진주 지역어, 음소 체계, 등어선, 방언 분화, 방언 구획

1. 머리말

1.1 목적과 방법

방언학의 본래 과제는 방언 지리학적 측면에서 방언구획을 설정해 방언 분화 모습을 찾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공간에 따라 달라진 방언을 끊임없이 연구해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진주 지역어의 음소 체계를 확립하고, 진주 하위 지역에서 이질적인 음운 체계의 측면으로, 진주에 작은(소) 방언권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한 언어 구역 안에 체계를 달리하는 방언의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찾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방언의 경계를 찾는 방법은 주로 등어선을 등급화 하여 방언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한 지역어은 음소 체계, 음운 변동 규칙을 가지게 되고, 이와 같은 이질적인 음운적 자질이 쌓인 곳에 선을 그어진 것을 음운 등어선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방언 구획을 설정하는 방법은 음소 체계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다.

진주 지역어 음소 체계 연구는 제보자의 방언 자료에 의지한다. 방언 조사 지점은 중요하다. 조사지점이 많은 적든 방언차가 나는 곳은 모두 조사지점으로 선정해야 한다. 조사지점은 행정단위인 면(面)으로 것이 좋다. 언어지리학적 또는 사회언어학적인 배경도 없이 한 군(郡) 안에서 한 두 곳의 조사지점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언 조사지점은 진주시의 면(面) 단위로 한다.

1.2. 조사와 제보자

이 연구의 방언 조사는 필자와 진주 하위 지역에 있는 지인,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학생으로 구성해 조사 활동을 했다. 조사는 1차 2013년 6월 24일~27일, 2차 2014년 5월 25일~27일에 했으며, 제보자의 명단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1> 방언 제보자 명단

이름	주소	나이	성별	이름	주소	나이	성별
제성근	반성면	71	남	강남이	내동면	82	여
허두자	지수면	72	여	강규진	판문동	70	남
이진기	사봉면	63	남	허만수	집현면	80	남
김덕조	진성면	78	남	모이임	대곡면	72	여
이상철	금산면	78	남	최영두	미천면	60	남
제준식	문산면	78	남	최예자	명석면	78	여
김시택	금곡면	86	남	정대화	대평면	83	남
이경옥	정촌면	66	남	성금악	수곡면	80	여

2. 진주 방언 홀소리 체계

중부 방언¹⁾의 음소는 홀홀소리 10개, 겹홀소리 11개, 반홀소리 3개 체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진주 지역어에서의 홀소리가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살피고, 홀홀소리 음소 체계와 겹홀소리의 음소 체계를 설정해 본다.

2.1. 홀홀소리

1) 중부 방언은 서울·경기 지역의 방언을 지칭하는 것이다.

중부 방언에서는 /i(ㅣ), a(ㅏ), o(ㅑ), u(ㅓ), e(ㅕ), ε(ㅛ), ə(ㅜ), i(ㅡ), ø(ㅟ), y(ㅠ)/ 10음소 체계로 되어 있다²⁾. 방언 연구자들에 의하면 진주 지역어에서의 훌훌소리 체계가 7음소로 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소 행정단위인 진주 면 단위로 진주 지역어를 조사 분석한 결과 진주 음소는 하위 지역에 따라 6~7음소 실현 되고 있다³⁾. 곧 진주 지역의 훌훌소리 체계는 /i, a, o, u, e(E), ε(E), ʒ/의 7(6)개 음소로 되어 있다.

2.1.1. /a/

중부 방언에서의 /a/ 음소가 대립하는 음소는 /ε/와 /ə/이다. 진주 지역어 /a/ 음소에 가까운 소리인 준동음어는 음소 /ε(E)/와 /ʒ/로 되어 있다. 곧 진주의 하위 지역에 따라 다음에서처럼 /a/ 음소에 가까운 소리인 준동음어는 중부 방언과는 다르게 실현된다. 다음 예 (1)와 같다.

(1) /a/ : /ε(E)/ - /k'ata/(까다) : /k'e(E)ta/(깨다)

/a/ : /ʒ/ - /makta/(막다) : /mʒkta/(먹다)

2.1.2. /i/

중부 방언의 /i/ 음소에 대립적인 소리는 /e, y, i/ 세 음소이다. 진주 지역어의 /i/ 음소에 가까운 소리인 준동음어는 음소 /e(E), ʒ/가 있다. 진주의 하위 지역에 따라 /i/ 음소에 가까운 소리인 준동음어는 다르게 실현된다. 다음

- 2) 중부 방언의 대립하는 준동음어는 허 웅(1985, 198~201)에서의 것을 인용했다.
 3) 박정수(1999:34)는 경남 방언의 하위 지역에서 실현되는 훌훌소리 체계는 다음과 같음을 밝히고 있다.

실현 지역	실현 음소	
남해, 하동, 사천, 고성, 통영	/i, a, o, u, e, ε, ə, i/	8음소
진주, 산청, 함양	/i, a, o, u, e, ε, ʒ/	7음소
울산, 양산, 김해, 밀양, 창녕, 창원, 거제, 함안, 의령, 합천, 거창	/i, a, o, u, E, ʒ/	6음소

예 (2)와 같다.

(2) /i/ : /e(E)/ - /tʃi/(치) : /tʃe(E)/(체)
/i/ : /ɜ/ - /kil/(길) - /kɜl/(글)

중부 방언에서의 /y/ 음소와 가까운 소리는 /i, i, ∅, u/ 네 음소이다. 다음 (3)의 준동음어로 이 대립들은 모두 음소적이다.

(3) /y/ : /i/ - /ky/(귀) : /kil/(길)
/y/ : /i/ - /tʃy/(쥐) : /ki/(그)
/y/ : /∅/ - /ty/(뒤) : /t∅/(되)
/y/ : /u/ - /kysin/(귀신) : /tu/(두)

그러나 /y/ 음소는 진주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남 방언에서는 /y/ 음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 지역에서의 화자들은 중부 방언 /y/ 음소를 /i/ 음소 또는 /u/ 음소로 발음하고 있다. /y/ 음소는 /i/ 음소 또는 /u/ 음소 어느 한 쪽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i/ 또는 /u/의 양 쪽에서 한 쪽을 선택해 실현하고 있다. 다음 (4) 예를 보인다.

(4) /y/ > /i/ : /ki/(귀), /tʃi/(쥐), /sɪpta/(첩다), /kisin/(귀신)
/y/ > /u/ : /sau/(사위), /paŋku/(방귀), /k'amaku/(까마귀)

홀소리 변별 조건은 혀의 자리(앞-뒤),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이다. /i/와 /y/음소의 변별 조건에 있어 자리와 높낮이는 같은데 입술 모양은 다르다. 특히 경남 방언 화자들은 /y/음소 발음을 할 때, 입술을 둥글게 하고 펴는 동작 기능이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진주 지역에서는 /y/ 음소가 아예 없으며, 발음 실현의 현상은 모든 경남 방언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2.1.3. /u/

중부 방언에서 /u/ 음소와 다른 음소와의 대립을 보이는 음소는 /i, y, o/ 셋이다. 그러나 진주 지역어의 /u/ 음소와 가까운 소리와 대립하는 소리는 /ɜ, o/ 두 개다. 다음 예 (5)를 보인다.

(5) /u/ : /ɜ/ - /kul/(굴) : /kɜl/(글)

/u/ : /o/ - /kul/(굴) : /kol/(골)

2.1.4. /o/

중부 방언에서는 /o/ 음소에 대립되는 음소는 /u, ∅, ə/ 셋이다. 그러나 진주 지역어에서는 /o/ 음소에 대립되고 가까운 소리인 준동음어는 /u, ɜ/ 둘이 있다. 다음 예 (6)와 같다.

(6) /o/ : /u/ - /tolta/(돌다) : /tulta/(둘다)

/o/ : /ɜ/ - /ʃolta/(졸다) : /ʃɜlta/(즐기다)

2.1.5. /e/

중부 방언의 /e/ 음소에 대립적인 소리는 /i, ɛ, ∅, ə/ 네 개 음소가 있다. 진주 지역어 /e(E)/는 진주 하위 지역에 따라 /e/ 음소와 /ɛ/ 두 음소가 합류된 /E/ 음소가 실현되고 있다. 곧 진주 지역어는 진주 하위 지역에 따라 /e/ 음소로 실현되는 지역과 /E/ 음소로 실현되는 지역으로 분화되고 있다.

/e/ 음소부터 논의 해 보면 진주 하위 지역에서 /e/ 음소에 가까운 소리인 준동음어는 세 개의 음소 /i, ɛ, ɜ/가 있다. 이 /e/ 음소가 실현되는 진주 하위 지역은 대곡, 집현, 미천, 명석, 내동, 대평, 수곡이 있다. 곧 /e/ 음소가 실현되는 지역은 진주 남강을 중심으로 서북부 지역에 해당된다. 다음 예 (7)와 같다.

- (7) /e/ : /i/ - /ke/(개-蟹) : /ʃil/(길-道)
 /e/ : /ɛ/ - /t'e/(Ep-群) : /sɛ/(새-鳥)
 /e/ : /ɜ/ - /s'eta/(세-強) : /tʰɜl/(털-毛)

중부 방언에서는 /∅/ 음소에 대립되는 /e/, /y/, /ə/ /o/ 네 개의 음소가 있다. 이에는 다음 예 (8)와 같은 것이 있다.

- (8) /∅/ : /e/ - /t∅ta/(되다) : /teta/(테다)
 /∅/ : /y/ - /t∅/(되) : /ty/(뒤)
 /∅/ : /ə/ - /t∅ni/(되니←되다) : /təni/(더니←덜다)
 /∅/ : /o/ - /t∅ni/(되니) : /toni/(도니←돌다)

/∅/ 음소는 진주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전 지역에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이 /∅/ 음소의 현상은 /y/ 음소와 같이 경남 방언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주 지역에서 /∅/ 음소는 없고, /∅/ 음소를 /ɛ(E)/ 소리로 발음하고 있다. 이에는 다음 예 (9)와 같다.

- (9) /∅/ > /e/ : /se/(쇠-鐵), /k'e/(피), /enson/(원손), /tenʃaŋ/(된장)

/y/와 /∅/ 음소는 원래 겹홀소리이던 것이 홀홀소리로 바뀌었다. 겹홀소리가 왜 홀홀소리가 생성된 까닭은 뒤혀소리의 입술소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y/와 /∅/ 음소는⁴⁾ 왜 경남의 모든 지역에서 발음을 하지 못 할까? 음소의 변별적 바탕은 3가지가 있는데, 곧 그것은 혀의 높낮이, 혀의 앞뒤 자리, 입술의 모양이다. /y/와 /∅/ 음소의 이 두 소리는 둥근 입술 모양의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4) /∅/ 음소는 19세기 이전에 실현되어 오던 것이 현대국어 시기에 급격히 자취를 감춰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y/와 /∅/ 음소는 원래 겹홀소리이던 것이 홀홀소리로 바뀌었고, 왜 홀홀소리가 생성된 까닭은 뒤혀소리의 입술소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일 것이다(박종덕, 2005:241-242).

경남 방언을 발음할 때, 화자가 변별적 바탕인 입술 모양을 둥글게 하고 퍼는 동작을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경남 지역에서 /y/와 /ø/ 음소가 발음되지 못하고 있는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경남의 화자는 /y/와 /ø/ 음소를 발음을 할 때, 곧 입술을 둥글게 하고 퍼는 동작을 하는 기능이 다른 지역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뒤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y/와 /ø/ 두 음소를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하는 동작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언어 조직에서 체계의 균형을 중요하지만 화자들은 발음의 편의를 위한 경향 큰 때문인 것 같다.

2.1.6. /ɛ/

중부 방언에서 /ɛ/ 음소에 대립되는 음소는 /e, a/ 두 개가 있다. 진주 지역 어 /ɛ/는 진주 하위 지역에 따라 /ɛ/ 음소 또는 /ɛ/와 /e/ 두 음소가 합류해 /E/ 음소로 실현되고 있다. 곧 진주 지역에서는 /ɛ/ 음소가 실현되고 있는 하위 지역과 /E/ 음소가 실현되는 진주 하위 지역으로 분화 된다.

여기서는 /ɛ/ 음소에 대해 논의하는데, /ɛ/ 음소와 가까운 소리는 /a/ 하나 밖에 없다. 이 두 소리 /ɛ/와 /a/의 관계는 준동음어이고 음소적 대립된다. /ɛ/ 음소가 실현되는 지역은 대곡, 집현, 미천, 명석, 내동, 대평, 수곡인데, 진주 서북부 지역에 해당한다.

진주 지역어의 /ɛ/ 음소가 대립하는 음소를 보이면 다음 예 (10)과 같다.

- (10) /ɛ/ : /a/ - /ke/(개-犬) : /kata/(가다)
 /ɛ/ : /e/ - /se/(새-鳥) : /t'e/(떼--群)

2.1.7.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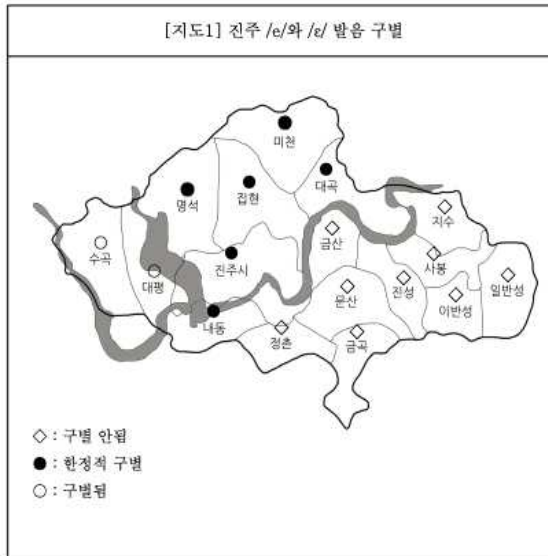
진주 하위 지역에서 /E/ 음소가 있다. /E/에 가까운 소리인 준동음어는 두 개의 음소 /i, a/가 있다. 이것은 다음 (11)의 내용과 같다. /E/ 음소는 진주 하위 지역 동남부인 사봉, 지수, 일반성, 이반성, 진성, 금산, 문산, 금곡, 정촌

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 지역은 진주 동남부 곧 남강의 남부에 해당한다. 곧 진주 동남부 지역에서는 /e/ 음소와 /ɛ/ 음소는 서로 대립하지 못 하며, 이 지역에서 음소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주 대곡, 집현, 미천, 명석, 내동 지역에서는 /e/ 음소와 /ɛ/ 두 음소를 한정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수곡과 대평 지역에서는 대립을 하고 있다.

- (11) /E/ : /i/ - /kE/(계-蟹, 犬) : /ki/(깃발)
 /E/ : /a/ - /kE/(계-蟹, 犬) : /kata/(가다)

진주 동남부 지역에서는 /ɛ/ 음소와 /e/ 음소, 또는 /e/ 음소와 /ɛ/ 음소는 대립하지 못 하며, /e/ 음소와 /ɛ/ 음소가 두 음소는 하나의 /E/ 음소로 합류해 실현되고 있다. 진주 하위 지역에서 /e/ 음소와 /ɛ/ 발음이 구별되는 모습은 ‘<지도1> 진주 /e/와 /ɛ/ 발음 구별’에서 보이도록 한다.



2.1.8. /ɜ/

중부 방언의 /ə/ 음소에 대립 되는 소리는 /i, ∅, e, o, a/의 다섯이 있는데, 이는 (12)과 같다. 그리고 중부 방언에는 /i/ 음소에 대립 되는 소리로 /i, y, u, ə/ 넷이 있으며, 이는 다음 예 (13)와 같다.

- (12) /ə/ : /a/ - /səl/(설) : /kaŋ/(강-江)
 /ə/ : /i/ - /sənsu/(선수) : /kil/(글-書)
 /ə/ : /e/ - /nəl/(널-板) : /se/(세-三)
 /ə/ : /o/ - /tʰəl/(털-毛) : /oli/(오리)
 /ə/ : /∅/ - /təni/(더니←덜다) : /t∅ni/(되니←되다)
- (13) /i/ : /i/ - /nil/(늘-恒) : /kito/(기도)
 /i/ : /u/ - /til/(뜰-野) : /usan/(우산)
 /i/ : /ə/ - /tʰil/(뜰-機) : /təl/(덜-小)
 /i/ : /y/ - /ki/(그) : /tʃy/(쥐)

그러나 진주 지역어에서는 /ə/ 음소와 /i/ 음소 두 음소를 대립(변별)하지 못 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ə/ 음소와 /i/ 음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곧 /ə/ 음소와 /i/ 두 음소가 하나의 소리로 중화해 /ɜ/ 음소로 실현되고 있다⁵⁾. /ə/와 /i/의 중화된 발음 영역을 기술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ə/와 /i/가 중화해 /ɜ/ 음소로 실현되었다고 하지만 어느 한 위치에서 조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남 방언에서는 /ə/와 /i/가 중화할 때 /i/보다 /ə/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많다. 진주 지역어의 /ɜ/ 음소에 가까운 소리는 /a, e, o/ 세 소리가 있는데, 아래 예 (14)와 같다.

5) 김정대(1998:328)는 경남 방언의 홀소리 음소 체계를 연구 할 때, 남강을 중심으로 동북지역은 ‘/i/ · /ə/’는 물론 ‘/e/ · /e/’도 대립하지 못하는 지역이고, 서남은 ‘/e/ : /e/’는 대립하나 ‘/i/ : /ə/’는 대체로 대립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e/ : /e/’의 대립하는 경계지역은 진주지역에서는 남강이 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 (14) /ɜ/ : /a/ - /kɜl/(글-書) : /san/(산-山)
 /ɜ/ : /e/ - /tɜl/(들-野) : /se/(세-三)
 /ɜ/ : /o/ - /tʰɜl/(털-毛) : /oli/(오리)

진주 하위 지역에서 훌훌소리가 실현되는 것을 정리해 본다. 남강을 중심으로 진주 동남부 지역에서는 6음소가 실현되고, 서북부에서는 7음소가 실현되는데, 다음 <표2>와 같다.

<표2> 진주에서 실현되는 훌훌소리

지역		음소	음소수
A	대곡, 집현, 미천, 명석, 내동, 대평, 수곡	/a, i, u, o, e, ɛ, ɜ/	7
B	사봉, 지수, 일반성, 이반성, 진성, 금산, 문산, 정촌	/a, i, u, o, E, ɜ/	6

진주 동남부 지역(<표2> B지역)인 사봉, 지수, 일반성, 이반성, 진성, 금산, 문산, 금곡, 정촌에서는 /e/와 /ɛ/, /ə/와 /i/ 각 두 음소를 구별해 발음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e/와 /ɛ/ 두 소리를 /E/로 중화하고, /ə/와 /i/는 두 소리를 /ɜ/로 중화한다. 진주 서북부 지역(A지역)인 대곡, 집현, 미천, 명석, 내동, 대평, 수곡 지역어에서는 /e/와 /ɛ/ 두 음소를 구별해 발음할 수 있거나, /ə/와 /i/ 음소를 변별하지 못해 두 소리를 중화해서 /ɜ/로 실현하고 있다.

경남 방언의 체계를 논의 할 때 항상 문제로 제시하는 것은 /e/와 /ɛ/의 변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ə/와 /i/의 변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y/와 /ʌ/가 훌훌소리로 실현되는지 등이 논의의 대상이다.

경남 방언에서는 지역에 따라 /e/와 /ɛ/, /ə/와 /i/ 각각 두 음소는 대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와 /ɛ/, /ə/와 /i/ 각각 두 음소는 비슷하다. /e/와 /ɛ/, /ə/와 /i/ 각각 두 음소는 변별적 바탕인 혀의 높이, 혀의 자리, 입술의 모양에 있어서 많이 가깝다. 곧 이 두 소리는 자리와 입술의 바탕은 같다. 단지 혀의

높낮이에 의해 달라지고 있다. 이 방언의 언중들에게는 혀의 높낮이에 의한 음소 구별기능이 약해서 두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인 것 같다.

2.2. 겹홀소리

중부 방언에서 겹홀소리는 11음소의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방언 연구자들은 경남 방언 겹홀소리 체계는 7음소, 6음소, 5음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주장하고 있다⁶⁾. 그러나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진주 지역어의 겹홀소리 체계는 진주 하위 지역에 따라 6음소와 7음소 체계로 되어 있다.

중부 방언에서의 반홀소리는 /j-, w-, i-/ 세 개인데, 진주에서의 반홀소리는 /j-, w-/ 두 개다. 진주 지역어에는 중부 방언에 있는 반홀소리 /i-/ 는 존재하지 않는다. 곧 경남 하위 방언에서 뿐 아니라, 진주 지역어의 반홀소리는 /j-, /w-/ 두 음소만이 실현되고 있다. 경남 방언 및 진주 지역어의 겹홀소리는 음소의 분포가 음소로 불안정하다.

2.2.1. /j-/계 겹홀소리

중부 방언의 /j-/계 겹홀소리는 /ja(ㅏ), jə(ㅓ), ju(ㅠ), jo(ㅛ), je(ㅕ), je

6) 경남 방언의 하위 지역에서 실현되는 겹홀소리 체계는 방언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지역	연구자	/j -/계	/w-/계	음소수
하동(A)	박정수(2010)	/ja, jə, je, jɛ, ju, jo/	/wa, wə, we/	9
하동(B)		/ja, jə, je, ju, jo/	/wa, wə, we/	8
하동(C)		/ja, jə, je, ju, jo/	/wa, wɜ/	7
진주	김형춘(1993)	/ja, jɜ, je, ju, jo/		6
	김중곤(1971)	/ja, jɜ, ju, jo/		7
통영	박정수(2009)	/ja, jə, jɛ, ju, jo/		7
산청	박정수(1991)	/ja, jɜ, ju, jo/	/wa/	5
남해	김형주(1983)			
양산	박지홍(1975)			
김해	김영송(1973)			

(H)/ 6음소가 있다. 그러나 진주 지역어에서 /j-/계 겹홀소리는 /ja, jɜ, ju, jo/ 4음소 체계로 되어 있다⁷⁾. 진주 지역어에서 /j-/계 겹홀소리 체계에 대한 연구자들은 4음소 또는 5음소로 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즉 진주 지역에서 /je/와 /jɛ/의 두 음소가 과연 현재 실현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진주의 하위 지역인 면(面) 단위로 방언 조사를 했다. 또 진주 지역에서 남강을 경계로 /je/와 /jɛ/의 음소가 실제로 발음되고 있는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했다. 진주 지역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je/와 /jɛ/의 두 음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진주에서 실현되는 /j-/계 겹홀소리는 다음 (15) 예와 같다.

- (15) /ja/ - /jaŋnjɜm/(양념), /jamulta/(야물다)
 /jɜ/ - /jɜlɜm/(여름)
 /ju/ - /juli/(유리), /onjuɜl/(오뉴월)
 /jo/ - /joliyata/(요리하다)
 /*je/ - /*je/(대답), /jesiktʃaŋ(예식장)
 /*jɛ/ - /*jɛ/(애)

- (16) /pʲjam/ → /pʲam/(뺨 → 뺨)
 /kjɜul/ → /ke(E)ul/(겨울 → 겨울)
 /supnjun/ → /supnuŋ/(승냥 → 승냥)
 /tamnjo/ → /tamno/(담뇨 → 담노)

예 (15)와 같이 /ja, jɜ, ju, jo/ 네 개 음소는 진주의 모든 하위 지역에서 실현된다. /jɜ/ 음소의 /ɜ/ 음소는 /ə/와 /i/(/jɜ(← i + ɜ)/)가 통합해 이루어진 음소이다. 위의 예 (16)에서처럼 /j-/계 겹홀소리는 말의 첫 음절에서 또는 2음절 이상의 자리에 닿소리가 오면 반홀소리 /j-/ 는 없어진다.

7) 김중근(1971:66)은 진주 지역에서 /j-/ 계의 /je/와 /jɛ/는 음운론적 가치가 희박함을 밝히고 있다.

2.2.2. /w-/계 겹홀소리

중부 방언의 /w-/계 겹홀소리는 /wa(나), wə(거), we(계), we(새), wi(기)⁸⁾ / 5개의 음소가 있다. 그러나 진주 지역어는 하위 지역에서 따라 /w-/계 겹홀소리인 /wa/와 /wɜ/ 두 음소 체계를 보이고 있다. 다음 예 (17)와 (18)에 보인다.

(17) /wa/ - /wanŋ/(왕=君), /wanhEŋ/(완행=急行)

/wɜ/ - /wɔlkɜp˚/(월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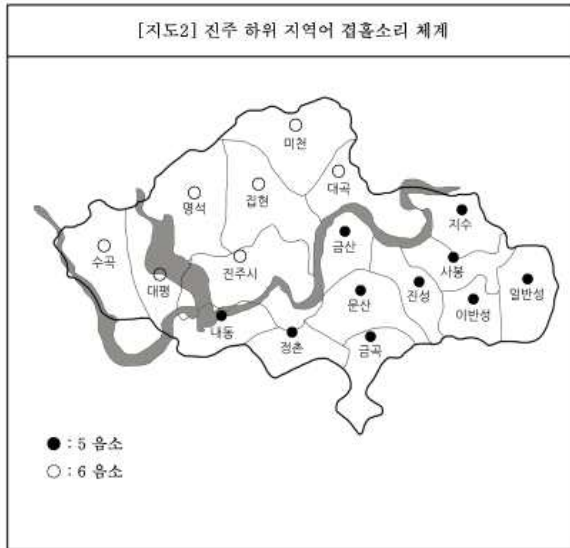
(18) /kwaf̥a/ → /kaf̥a/(과자 → 가자)

/kwɜnhanta/ → /kɜnhanta(권한다 → 낯한다)

위의 예 (17)는 진주 지역에서 /wa/ 음소는 진주 모든 하위 지역에서 실현되고, /wɜ/ 음소는 진주 하위 지역에 따라 보편적이 아닌 한정적으로 실현되고 있다⁹⁾. /wɜ/ 음소는 진주 지역에서 말의 첫 자리에서 /wɜ/ 또는 /ɜ/로 발음되기도 한다. 위 예 (18)와 같이, /w-/계 겹홀소리도 /j-/계 겹홀소리처럼 말의 첫 음절에서 또는 2음절 이상의 자리에 닿소리가 오면 /w-/가 탈락해 /w-/ 소리를 발음하지 못한다.

8) 허웅(1984:63)에서는 ‘위로, 위하여’의 ‘위’는 /wi/로 내고, ‘귀, 뒤, 쉽다. 쥐다’의 ‘위’는 겹홀소리인 /wi/도 내고 홀홀소리인 /y/로 내기도 한다. 표준 발음법(제4항)에서 /기/는 홀홀소리로 발음하되 겹홀소리인 /wi/로 발음할 수 있게 한다.

9) /wɜ/ 음소는 집현, 미천, 대곡, 판문, 명석, 대평, 수곡에서 보편적 아니지만 한정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wɜ/ 음소는 진주 하위 지역의 음소로 본다.



/w3/ 음소는 진주의 서북부인 집현, 미천, 대곡, 판문, 명석, 대평, 수곡에서 한정적으로 실현 되고 있다. 곧 /w3/ 음소는 진주의 동남부에 해당하는 내동, 정촌, 문산, 금산, 금곡, 진성, 사봉, 이수, 반성 존재하지 않는다. 진주 동남부 지역의 /w-/계 곁홀소리 체계에는 /wa/ 음소밖에 없다.

그리고 /w3/ 음소가 진주 서북부인 집현, 미천, 대곡, 판문, 명석, 대평, 수곡 지역에서는 한정적으로 실현되나, /w3/ 음소의 발음이 불안정 하게 나타나 있으나, 음소로 존재하고 있다. 진주 지역어 /w-/계 곁홀소리 /wa/와 /w3/ 음소 중에 /w3/ 음소는 소멸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개신과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려와 /wa/ 음소 하나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¹⁰⁾. 진주 하위지역에서 실

10) 경남 방언에서 변동 규칙들로 이끌어 낸 개신과의 방향은 크게 다섯으로 나누어진다. 이 방언에서는 개신화의 경향이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언어 현상의 지배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그 개신과의 방향은 동→서, 서→동, 남→북, 북→남의 네 유형이 주류를 이룬다. 개신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동·서에서 또는 남·북에서 동시에 개신이 발생하여 그 개신과가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는 동서 방향의 개신이 여타 다른 방향의 개신정보다 더 생산적이다(박정수,

현되는 /w-/계 겹홀소리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진주에 실현되는 /w-/계 겹홀소리

실현 음소수	1음소	2음소
실현 음소	/wa/	/wa/, /wɜ/
실현 지역	내동, 정촌, 문산, 금산, 금곡, 진성, 사봉, 지수, 반성	집현, 미천, 대곡, 판문, 명석, 대평, 수곡

진주 하위 지역어의 겹홀소리 체계는 다음 <표4>와 같은데, 겹홀소리 체계는 하위 지역에 따라 2개의 방언권으로 되어 있다. 또 겹홀소리가 실현되는 지역적 분포는 <지도2>와 같고, 진주의 겹홀소리체계는 하위 지역에 따라 5음소와 6음소로 되어 있다.

<표4> 진주의 하위 지역 겹홀소리

지역		음소		음소수
		/j-/계	/w-/계	
내동, 정촌, 문산, 금산, 금곡, 진성, 사봉, 지수, 반성	C 지역	/ja/, /jɜ/, /ju/, /jo/	/wa/	5
집현, 미천, 대곡, 판문, 명석, 대평, 수곡	D 지역	/ja/, /jɜ/, /ju/, /jo/	/wa/, /wɜ/	6

2.3. 홀소리 체계

진주 지역어는 지역 하위에 따라 홀소리 체계가 다르다.

2.3.1. 홀홀소리 조직

경남 방언의 하위 지역어의 홀소리 체계는 공통적으로 /i, a, o, u/ 4음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밖에는 소리는 /e, ε, ə, i, y, Ø/ 6음소가 있는데, 이 6음소는 경남 방언의 하위 지역어에서 따라 다른 음소 체계를 보인다. 진주 하위 지역어에서의 홀홀소리는 공통적으로 /i, a, o, u, ɜ(ə/i)/ 5음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밖에 진주 하위 지역에 따라 /e/와 /ε/, /E(e/ε)/ 음소가 있다. /y/와 /Ø/ 음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진주 지역어 체계는 6(7)음소이다.

곧 진주 서북부 지역(<표2> A지역)인 집현, 미천, 대곡, 판문, 명석, 대평, 수곡에서는 /e/와 /ε/ 음소를 변별하고 있어 7음소 체계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진주 동남부 지역(<표2> B지역)인 사봉, 지수, 일반성, 이반성, 진성, 금산, 문산, 금곡, 정촌에서는 /e/와 /ε/ 두 음소를 변별하지 못해, 6음소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진주 하위 지역어의 음소 체계는 6음소 또는 7음소인데, 다음 <표5>처럼 같다.

음소 체계에 있어, 서북부 지역(<표2> A지역)에서는 3계열 3서열의 조직이고, 동남부 지역(<표2> B지역)에서는 2계열 3서열의 조직이다. 중부 방언의 홀홀소리의 체계는 비교적으로 균형 잡힌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주 동남부 지역어는 /e, ε/와 /ə, i/의 짝이 각각 변별되지 않는다. 곧 경남 방언뿐만이 아니라 진주 지역어에서도 불완전한 음소 체계로 되어 있다.

<표5> 진주 홀홀소리 체계

자리 높이	A 지역				B 지역			
	-뒤		+뒤		-뒤		+뒤	
	-동근	+동근	-동근	+동근	-동근	+동근	-동근	+동근
+높은	/i/		/ɜ(ə/i)/	/u/	/i/		/ɜ(ə/i)/	/u/
-높은, -낮은	/e/			/o/	/E(e/ε)/			/o/
+낮은	/ε/		/a/				/a/	

2.3.2. 겹홀소리의 조직

중부 방언에서 겹홀소리 체계는 11음소이다. 곧 /j-/계는 6음소, /w-/계는 4음소, /i-/계는 1음소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경남 방언 및 진주 지역어에서는 /i-/계의 겹홀소리는 없다. 진주 지역어에서는 반홀소리와 홀홀소리가 결합해 겹홀소리를 형성할 때에 제약이 심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주 하위 지역에서 따라 겹홀소리는 6음소 또는 5음소 체계로 되어 있다.

/j-/계의 겹홀소리는 진주 하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4음소로 되어 있고, /w-/계의 겹홀소리는 진주 하위 지역에 따라 서북부(<표2> A지역) 지역은 2음소, 동남부(<표2 B지역) 지역은 1음소 체계로 되어 있다. 진주 하위 지역 동남부(<표2> B지역) 지역어에서 홀홀소리에서 변별되지 않던 /e/와 /ɛ/ 음소가 역시 겹홀소리에서도 변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je/와 /jɛ/가 /jE/로 중화된 것이고, 또 /ə/와 /i/ 음소도 변별되지 않고 중화된 /ɜ/ 소리로 된 것이다. 그래서 진주 지역어에서는 겹홀소리 /ij(-)/ 음소도 자연스럽게 실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진주 지역어의 겹홀소리는 말의 첫 음절에서 닿소리가 있을 때 겹홀소리는 홀홀소리로 바뀐다. 진주의 겹홀소리 체계는 하위 지역에 따라 5음소와 6음소로 되어 있다. 체계는 다음 <표6>와 같다.

<표6> 진주 겹홀소리 체계

음소·지역 자리	/j-/계		/w-/계	
			A지역	B지역
입	+ 뒤		+ 뒤	+ 뒤
	-등근	+ 등근	-등근	-등근
높이	/jɜ/	/ju/	/wɜ/	
+높은		/jo/		
-높은, -낮은				
+낮은	/ja/		/wa/	/wa/

3. 방언 경계로서의 남강

3.1. 진주의 소방언권 분화

3.1.1. 진주 소방언권 구획 설정

앞의 ‘2. 진주 지역어 홀소리 체계’에서 진주 지역어의 음소의 체계를 논의를 했다. 그 결과 진주 지역어의 홀홀소리 음소 체계는 2개로 밝혀졌다. 아래의 <지도3>에서처럼, 홀홀소리는 7음소 체계(A지역)와 6음소 체계(B지역)로 분화되었다. 또 진주지역어 /j-/계의 겹홀소리는 진주 하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4음소로 되어 있다. /w-/계의 겹홀소리는 진주 하위 지역에 따라 서북부(C지역)은 2음소, 동남부(D지역)은 1음소 체계로 되어 있다. 진주 지역어 음소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지도3>과 같다.



위에서와 같이 진주 지역에는 2개의 작은 방언권으로 분화되었다. 진주 지

역어의 구획 설정은 진주어 홀소리 체계 형태를 가지고 확정된 것이다. 곧 말의 체계를 달리하는 등어선의 두께에 의해 구획을 설정한다. 진주에는 등어선이 남강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이 등어선은 한 낱말들에 의해 형성된 등어선이 아닌 언어의 등어선이다. 우리들은 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등어선은 남강을 중심으로 쌓여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진주는 경남의 하위 방언으로 서부 경남 방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고, 또 진주에 이웃하고 있는 마산·함안군은 중부 경남 방언이다. 곧 방언 연구자들은 진주 지역어의 홀홀소리는 7음소 체계이고, 마산·함안 지역어의 홀홀소리는 6음소 체계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진주 전역(행정 면단위)을 대상으로 방언 조사를 해본 결과 진주 하위지역인 동남부 지역(<지도3>B지역)은 마산·함안 지역어와 같이 6홀소리 체계다.

한 두 곳의 조사 지점을 선정하여 방언 자료 수집 방법으로 연구했다면, 진주시 안에서 이질적인 방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서부 경남 방언권과 중부 경남 방언권의 경계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진주 지역에 두꺼운 방언구획 경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진주 지역어는 서북부 지역(<지도3>A) 방언권과 동남부 지역(<지도3>B) 방언권 2개의 작은(소) 방언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한 것이다.

방언 연구자들은 진주 지역어에 대한 방언 구획을 종합적으로 경남 방언의 하위인 중(소)방언권으로 구분하고 있다¹¹⁾. 곧 방언 연구자들은 아직까지 진주 지역어에서는 경남 방언의 중부 방언권인 동부방언 요소가 있음을 언급한 일은 없다. 진주 지역어는 소방언권 구획 설정할 수 있고, 두 개의 소방언권으로 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곧 진주 서북지역인 대곡, 집현, 미천, 명석, 내동, 대평, 수곡의 진주 하위 지역어는 서부방언권으로 분류해야 하고, 동남지역인 사봉, 지수, 일반성, 이반성, 진성, 금산, 문산, 금곡, 정촌의 진주 하위 지역어는 동남방언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11) 경남 방언 하위 방언 구획 연구자는 ‘김영송(1963:967~984), 김영태(1975:278~79), 최명옥(1994:861~892), 박정수(1999:184~204), 김택구(2000:30~114)’이다.

3.1.2. 등어선

이러한 방언 구획을 결정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등어선에 따른다. 어떠한 등어선은 그 몇 가지가 대체로 비슷한 방향을 향해 달리는 일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비슷한 방향으로 달리는 등어선의 묶음은 고립된 등어선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등어선의 묶음 중에도 수적으로 많은 묶음은 수적으로 적은 묶음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등어선 묶음이 어디어디로 얼마만한 두께로 지나가는가를 찾아 그로써 방언 경계를 삼아 방언 구획을 설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¹²⁾.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등어선을 ‘등어선 묶음’이라 한다¹³⁾.

이 글은 진주 지역어의 구획기준은 음운 체계를 통해 ‘전체등어선속’이다. 음운 체계 또는 음운 변동 규칙을 기준으로 하는 방언구획 방법은 몇 십 개의 언어항목 기준으로 하는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¹⁴⁾.

진주에는 방언 구획을 설정할 수 있는 등어선이 남강을 중심으로 흐른다고 볼 수 있다. 진주에는 진주 시내를 흐르는 남강이 있고, 그 남강을 중심으로 진주에 다른 언어 체계가 있다. 곧 남강은 방언의 경계선이 되고, 남강의 주변은 방언 접경지역이다. 진주 남강은 서쪽에서 입수해서 굽이굽이 흘러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진주 남강을 중심으로 볼 때, 동남부 지역과 서북부 지역에서 체계가 다른 작은 방언권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진주의 동부 쪽에서 먼저 방언의 분화가 일어난 것 같다.

12) 박정수(1999:184~188) Chambers and Trudgill(1980)은 언어 특질의 유형에 따라 등어선을 범주화하고, 그 등어선을 등급화 하여 7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단계별 가치(점수)를 따로 부여하는 근거를 다음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형별 등어선의 단계는 아래와 같다. 1. 어휘, 2. 발음, 3. 음성, 4. 음운, 5. 형태, 6. 통사, 7. 의미.

13) 음소 체계와 음운의 변동 규칙에 의한 등어선의 가치는 낱말의 어휘의 차이 등어선의 가치에 비해 음운의 가치가 더 높다. 이익섭(1984)에서는 형태의 층위보다 음운의 층위를 더 우위에 두고 있다.

14) 이 글은 음운, 형태, 어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언 구획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진주 지역어 음운 현상만을 가지고 진주 하위 방언 구획에 대해 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을 분명히 먼저 밝힌다.

4. 맺음말

진주 지역어의 홀소리 체계와 진주의 남강이 경남 중방언권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다.

진주 지역어의 홀소리 음소 체계는 2종류가 있다. 즉 음소 체계는 진주의 하위 지역에 따라 서북부 지역은 /a, i, u, o, e, ε, ʒ/ 7음소 체계이고, 동남부 지역은 /a, i, u, o, E, ʒ/ 6음소 체계로 되어 있다. 진주 동남부 지역에서는 /e/와 /ε/, /ə/와 /i/ 각각 두 음소를 발음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e/와 /ε/ 두 소리를 /E/로 중화하고, /ə/와 /i/ 두 소리를 /ʒ/로 중화한다. 그러나 진주 서북부 지역에서는 /ə/와 /i/ 음소만을 변별하지 못해서 두 소리를 중화해서 /ʒ/로 실현하고 있으나, /e/와 /ε/ 두 소리는 변별한다. 진주 지역어는 /y/ 음소는 /i/ 음소 또는 /u/ 음소 어느 한 쪽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i/ 또는 /u/의 양 쪽에서 한 쪽을 선택해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따라서 /∅/ 음소는 /ε(E)/ 소리로 발음하고 있다.

중부 방언에는 반홀소리가 /j-, w-, i-/ 셋이 있다. 그러나 진주 지역어에 서는 /j-/와 /w-/ 두 소리가 있다. 또 진주 지역어의 겹홀소리는 /j-/계의 /ja/, /jɜ/, /jo/, /ju/ 음소가 있다. /w-/ 계의 겹홀소리는 서북부 지역에서는 /wa, wɜ/ 두 음소이고, 동남부 지역에서는 /wa/ 1개 음소가 있다. 따라서 겹홀소리의 체계는 서북부(<표1> A지역) 지역은 2음소, 동남부(<표1> B지역) 지역은 1음소로 되어 있다.

진주의 동남부 지역에 6음소 체계가 되었고, 진주 북서부 지역에 7음소 체계가 되어, 2개 방언권이 분화되었다. 진주 남강은 교통 등 생활에 장애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진주 동부의 5개 면의 주민들은 반성의 장(市場)을 통해 접촉을 많이 했다. 곧 이들은 언어적 요인의 영향을 입어 진주의 소방언권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Discussion about a vowel system of Jinju dialect and boundary of the
middle dialect areas of Kyungnam

Park, Jungsoo

By analyzing Jinju dialect phoneme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ether small dialect areas exist in Jinju or not.

In Jinju dialect, the phoneme /ə/ and /i/ are not in confrontation. As a result of neutralization, these phonemes are merged into /ɜ/. According to the sub-regions, the differentiations of Jinju dialect are shown by revealing the phoneme /ɛ/ and /E/. In terms of phoneme system, there are differences among sub-regions in Jinju. For example, seven phonemes /a, i, u, o, e, ɛ, ɜ/ are spoken in the west northern region, while six phonemes /a, i, u, o, E, ɜ/ are discovered in the east-southern region.

There are two types of diphthong of Jinju dialect. First one is /j-/ type which is consisted of phonemes such as /ja/, /jɜ/, /jo/ and /ju/. Although /w-/ type of diphthong is appeared in this region, phonemes are differently used for sub-regions. For example, /wa/ and /wɜ/ are apparently found in the west-northern region. However, there is only /wa/ in the east-southern region.

We can divide Jinju into two sub-dialects areas by isogloss. Nam river can be a boundary line for differentiation of Jinju dialect. On the basis of this, there is separation between east-southern area and the west-northern area which contributes to form small dialect areas in Jinju.

Key words : vowel system, Jinju dialect, boundary, phoneme system, area, Nam river, region

참고문헌

□ 기본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방언 조사 질문지』 3편, 어문학연구실, 1980, 456~495면.

□ 단행본

김영송, 「경남 방언의 음운-경남도지(중)-」, 경상남도 도지 편찬위원회, 1963, 966-984면

김영태, 경상남도 방언 연구(1), 진명문화사, 1975, 1-279면.

김택구, 「경상남도의 언어지리」, 박이정, 2000, 1-221면,

박정수, 「경남 방언 분화연구」, 한국문화사, 1999, 1-308면.

박종덕, 「경상도 방언의 모음체계 변천사」, 박이정, 2005, 1-146면.

이익섭, 「방언학」, 민음사, 1984, 1-222면

허 응, 「국어학」, 샘문화사, 1984, 1-461면.

허 응, 「국어 음운학」, 샘문화, 1985, 1-303면.

□ 논문

김영송, 「김해 방언의 음운」, 『김해지구 종합학술조사보고』, 부산대학교, 1973, 97-118면.

김정대, 「경남방언의 성격」, 『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방언학과 국어학』 간행위원회, 1998, 321-364.

김중곤, 「진주 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동아대 대학원 석사논문, 1971, 1-125면.

김형주, 「남해의 음운연구」, 『석당 논총』 제7집, 동아대학교, 1983, 35-74면.

김형춘, 「진주 방언의 음운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 논문, 1-171면.

류성기, 「창원 동읍 방언의 문법 현상」, 『국제언어문학』 제26호, 국제언어학회, 2012, 161-186면.

박정수, 「산청지역어의 음소체계 연구」, 『진주문화』 제10호, 진주 문화권연구소, 1991, 13-36면.

박정수, 「하동의 방언 음운과 언어 지리에 대하여」, 『경남권문화』 제20호, 진주교대 경남권문화연구소, 2010, 7-50면.

박지홍, 「양산방언의 음운」, 『어문학』 제33호, 한국어문학회, 1997, 175-187면.

최명옥, 「경상도의 방언구획 시론」, 『우리말의 연구』, 대구 우골탑, 1994. 861-892면.

이 논문은 2016년 03월 04일 접수되어 04월 11일까지 심사받아 04월 15일 게재 확정됨.